

“우리도 함께 뛰다”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2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 위해 달려요”

전남대 봉사동아리 ‘한사랑’

“뛰고 나면 지치고 힘들 텐데도 항상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핀다. 무언가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운동은 마라톤만 한 게 없죠. 이번 대회도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함께 뛰었습니다.”

제48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전남대학교 봉사동아리 ‘한사랑’ OB 회원과 무등육아원의 아이들 30여명은 대회를 앞두고 기대와 흥분으로 들떠 있다.

지난 1988년 설립된 한사랑 봉사단은 올

무등육아원생·봉사자 30여명

5km·10km·하프코스예 도전

완주 후 성취감 함께 하고파

해로 25년째 동구 학동의 ‘무등육아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주 2회씩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넓은 마음을 알려주자’는 게 봉사단의 목표다. 성인이 되면 홀로 서야하는 아이들에게 자립심과 독립심을 길러주자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

이 갖는 편이다. 특히 2박 3일에 걸쳐 지리산 노고단부터 천왕봉을 종주하는 ‘지리산 종주’ 시간과 겨울 월출산을 함께 등반하는 ‘월출산 극지훈련’은 연중 행사의 백미로 꼽힌다. 아이들은 “취사도구와 식량을 함께 지고 올라가는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과정에서 도전정신과 협동심을 배우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한사랑 봉사단 OB 회원인 박정현(28)씨는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는 것을 아이들이 고맙게 여기고 스스로 무언가 하려고 할 때가 가장 뿌듯하다”며 “항상 밝은 모습으로 우리를 반겨주는 아이들을 보면 우리도 힘을

얻는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부터 참여한 광주일보 마라톤 대회는 그런 의미에서 이들에게 새롭고, 남다른 경험이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끝까지 정점을 향해 스스로 한발 한발을 떼야하는 ‘자신과의 싸움’이라 완주후에 해냈다는 성취감이 그 어떤 운동보다 크기 때문이다. 평소 축구 등의 운동을 통해 체력을 다진 아이들은 요즘에는 아침·저녁으로 운동장을 달리며 대회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자 아이들은 5km 코스를, 남학생과 OB는 10km와 하프코스를 등록해 총 20여 명이 이번 대회에 참가한다. 올해 처음으로 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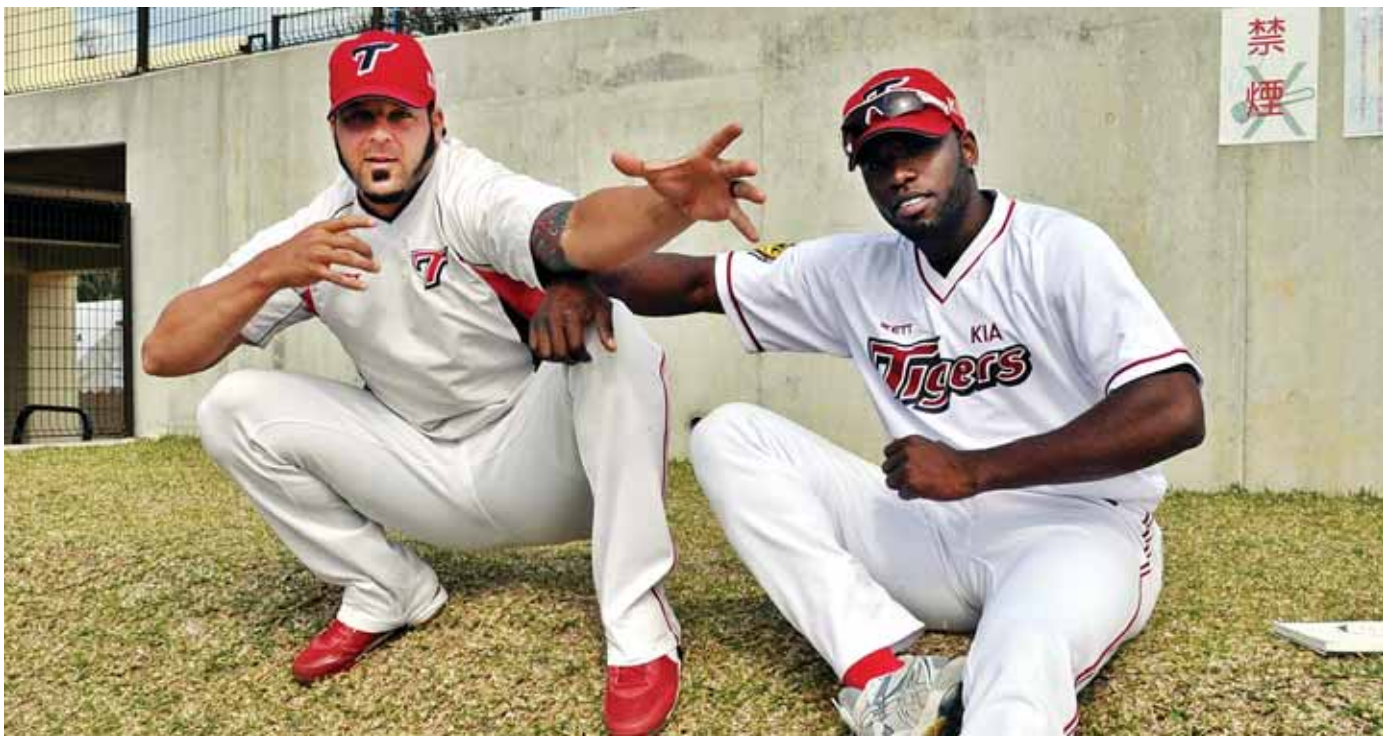


전남대 ‘한사랑’ 봉사단과 무등육아원 아이들은 올해로 3년째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마라톤 대회 모습. <한사랑 봉사단 제공>

코스에 도전하는 정상훈(16)군은 “10km에 참가했던 지난해에는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한달 전부터 준비

한 만큼 자신있다”며 “형·누나들과 함께 달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halo@kwangju.co.kr



KIA 타이거즈의 외국인 투수 앤서니와 소사가 익살스러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유쾌한 외국인 콤비 ‘앤서니’

<앤서니+소사>

오키나와=김여울 기자

소사의 강속구 비결은 코코넛과 엉덩이? KIA의 외국인 투수 소사는 최근 일본 오키나와에서 진행된 연습경기에서 153km의 강속구를 찍었다. 소사의 남다른 강속구 비결에 대해 두 외국인 선수 소사와 앤서니는 ‘코코넛과 엉덩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도미니카 출신의 소사는 “강속구의 힘은 코코넛에서 나왔다”고 웃었다. 설명은 이렇다. “도미니카에는 코코넛이 많다. 무거운 코코넛을 던지고 놀다 보니 팔 힘이 강해졌다.” 소사가 ‘코코넛’을 강속구의 힘으로 꼽자 앤서니는 ‘엉덩이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답을 제시해 두 선수의 웃음보가 터졌다. 긴 다리를 자랑하는 소사는 남다른 엉덩이까지 견비한 특급 몸매를 가지고 있다. KIA 선수들이 엉덩이를 내밀며 소사의 흉내를 낼 정도다.

이렇게 두 선수는 유쾌한 성격으로 타국 생활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고 있다. KIA는 올 시즌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앤서니, KIA 동료들 이름 지어주는 작명가로 인기

소사는 전문 미용기수로 머리 다듬어주는 이발사

앤서니와 소사 ‘앤서니’로 외국인 투수 콤비를 꾸렸다.

지난해 선발은 물론 임시 불펜으로도 활약했던 앤서니는 32경기에서 171과 3분의2 이닝을 책임지며 3.83의 방어율과 함께 11승 13패 1세이브를 기록했다. 소사는 23경기에 나와 147과 3분의1이닝을 소화하며 9승8패 3.54의 방어율을 기록했다.

전천후 투수로 활약했던 앤서니는 올 시즌 소방수 임무를 부여받아 마무리 수업을 받고 있는 중이고, 소사는 올 시즌에도 변화 없는 구위로 선발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 시즌 한국 무대에서 경험을 쌓은데다 호흡이 척척 들어맞으면서 이들에 대한 기대가 높다. 앞선 외국인 선수의 경우 인종과 빅리그에서의 성적 등에 따라 종종 불화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두 선수는 경기장 밖

에서도 친한 친구사이다. 선수단 내에서 인기 만점이다.

이번 캠프에서 소사는 이발사 역할을 겸하고 있고, 앤서니는 작명가로 활약하고 있다. 평소에도 직접 머리를 관리하는 소사는 전문적인 미용기구를 가지고 선수들의 머리를 다듬어 주고 있다. 앤서니는 동료들의 한국 이름에서 따 데비드, 손 같이 영어 이름을 지어주고 있다.

실력은 물론 팀워크 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선동열 감독은 얼마전 이들을 따로 불러 식사 대접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흥이 먹기에 도전하기도 했던 앤서니는 오키나와의 유명한 오징어 먹물탕까지 들이켰다.

2013시즌 유쾌한 두 외국인 투수의 한국 도전기 시즌 2가 KIA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 wool@kwangju.co.kr

“얼마만이냐...” 호랑이들 달콤한 늦잠

연일 강훈에 부상 우려, 어제 오전 훈련 대신 휴식 ‘선물’

호랑이들이 달콤한 늦잠에 취했다. 올 시즌 KIA 타이거즈의 오키나와 캠프는 연습경기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에서 일본으로 이동한 뒤 가진 시차 적응기간을 제외하고는 연습경기로 모든 일정이 짜여있다. 유일하게 경기가 없이 자체 훈련이 진행되는 날은 26일 하루.

매일같이 오후 1시 경기를 위해 오전 8시부터 훈련을 해왔던 선수단은 이날 ‘오전 휴식’이라는 친근감을 선물을 받았다.

가나인 캠프의 끝이 보이는 이맘때는 ‘캠프의 위기’다. 고단한 훈련에 몸도 지치고,

오랜 타국생활과 지쳐해지는 자리 경쟁에 마음도 지친다. 심신의 피로가 쌓인데다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부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KIA에서도 부상으로 인한 첫 중도 탈락자가 발생했다. 내야수 황정택이 허리 통증으로 귀국을 하게 됐고, 투수 한승혁도 어깨 통증으로 피칭을 중단한 상태다.

또 토타자로 중형무진 오키나와 리그에 개근했던 김주찬이 지난 25일 아킬레스 통증을 겪는 등 선수들의 피로가 극에 달한 만큼 부상 방지와 선수단 분위기를 위해 급히 스케줄을 바꿔 26일 오전 훈련 대신 휴식을 선택했다. ‘깜짝 선물’을 받은 KIA 선수들은 모처럼 늦잠을 자며 에너지 충전에 나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오키나와 캠프 말말말

▲그냥 가십니까? 선수 하나 데려가셔야죠=이순철 KIA 수석코치, 덕아웃을 찾은 김성환 수석코치가 돌아가지. 김 수석코치는 선동열 감독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다.

▲뭘가 이상하다고 했지=직접 운전을 하고 경기장에 나온 한화 김용률 감독. 차선이 한국과 반대인 일본에서 실수로 차선을 잘못 뺏다며,

▲발 빠른 사람들을 하도 봐서=한화 호주석이 빠르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은 김성환 수석코치, (이순철 수석코치와 이종범 코치를 가리키며) 빠른 사람들을 많이 봐서 눈높이가 높아졌다며,

▲중범신 찍어오=취재진의 카메라를 본 김선빈이 한화의 이종범 코치를 찍으라며,

▲맛있어오=카레와 김치를 섞어 면에 비벼먹던 외국인 투수 앤서니가 한국말로,

▲해보고 싶은 숫자인데 아직 못 했어오=이범호, 30홈런을 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넥센하고 경기 때 봐 보세오=투수 양현종과 박경태가 이 악물고 던져서 넥센이 강철 수석코치를 향해 세러모니를 하겠다며, KIA 투수코치에서 넥센으로 자리를 옮겨 서운하다며 농담으로,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시 월곡초등학교 축구선수들이 26일 2013 금석배 축구대회 초등부 우승컵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 월곡초등학교 제공>

광주 월곡초 금석배 축구대회 우승

광주시 월곡초등학교 축구부가 최근 군산에서 열린 2013 금석배 축구대회 초등부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금석배 축구대회는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대다수 축구선수들이 초등학교 시절 경험을 쌓는 대회로 축구 꿈나무들의 등용문으로 인정받고 있다. 올해도 전국 초등학교의 우수 축구부 40팀이 출전했으며 월곡초는 이번 대회 결승전에서 경북 포철동초를 1대0으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다.

월곡초는 우승과 더불어 고요한 선수가 대회 최우수선수로 뽑혔고 홍기우 선수는 골키퍼상, 송주민 선수는 수비상을 받았다. 박재현 코치는 최우수 코치상, 이명철 감독은 최우수 지도자상, 임승현 체육부장은 부장상을 수상했다. 박봉현 월곡초 교장은 “올해 첫 대회에서 우승해 놀랍고 자랑스럽다”며 “광주를 대표해 5월 대구에서 열린 소년체전에서 출전하는 만큼 우승 경험을 이어 앞으로 좋은 더 좋은 성적을 내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광주 목포항 셔틀버스 매일 운항
매일 광주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로 목포항까지 편안하게~
국내최대 씨스타크루즈호 타고 제주까지 안전하게~ 3만원으로 떠나세요.
셔틀버스+씨스타크루즈호 = 30,000원
광주출발 06:40 광천터미널 맞은편 목포출발 21:30 여객터미널 주차장
*1인 편도요금이며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씨월드 고속훼리(주) 우수대리점. 제주배대점 www.jejube.com 1644-2261

광주출도착 제주도 2박3일 매일출발
[목포, 장흥, 완도, 녹동출발 크루즈 및 쾌속선 왕복] **155,000원**

1일자 도두봉 트래킹, 수목원테마파크 - 트릭아트, 얼음박물관, 5D영상관
2일자 오설록, 코끼리랜드, 카멜리아힐 동백정원, 산방산유람선(현지직불), 올레길7코스, 새연교+새섬, 쇠소깍
3일자 삼나무숲길, 몽골리안마상소 or 매직소 (현지직불), 에코랜드 or 선녀와나무꾼 조랑말 승마체험, 제주허브동산, 해너촌

포함사항 : 광주-목포,장흥,완도,녹동)왕복 셔틀버스(45석 선착순), 왕복선박료, TAX, 차량, 일반 호텔(5~6인실), 일정표내 입장료, 식사(중식2회,조식2회)
불포함사항 : 가이드 팀, 개인비용, 현지직불관광, 자유식식, [완도,녹동]터미널-[완도,녹동]항 이동
금, 토 출발시 20,000원 추가 / 2인실 이용시 30,000원 추가 3월6일 ~ 7월19일까지 적용됩니다.